

가을엔 소리산책

〈가을엔 소리산책〉은 인천아트플랫폼 일대를 사운드 예술가들과 함께 걸으며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며 탐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리산책은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머레이 셰이퍼(R. Murray Schafer)가 특정 지역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생각해 낸 활동입니다.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는 ‘소리(Sound)와’ ‘풍경(Landscape)’의 합성어로 자연의 소리뿐 아니라, 기계 소리와 같은 인공적 소리, 사람의 목소리, 음악 등 다양한 소리를 포함하는 소리 환경에 대한 개념입니다. 서소형 작가가 계획한 지도를 길잡이 삼아 우리를 둘러싼 소리 환경을 탐구하는 시간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 손세희

소리의 색

예술가 서소형과 함께하는 소리산책

무심히 지나쳤던 주변의 소리풍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고 우리를 둘러싼 소리 환경을 주의 기울여 관찰해 보자. 이 소리풍경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소리를 시각적 언어로 표현해보거나 들리는 소리들을 녹음해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소리풍경의 관찰과 탐구를 돕는다. 소리를 관찰하기 위해 눈을 감거나, 걸음을 멈추는 것도 좋다.

시작 • 〈소리의 색〉은 인천아트플랫폼의 건물들 사이를 탐구하는 데서 시작한다. 먼저 E동 입구 복도와 C동 주차장 계단 근처에서는 좁아졌다가 넓어지고 또 미로 같기도 한 건축물의 특징과 함께 소리의 반향, 변화를 관찰한다.

한국근대문학관 앞 • 한국근대문학관 앞에서는 ‘소리풍경’에 대한 문학적 표현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문학에 나타난 소리의 묘사를 읽고 소리를 상상해 보자. 예를 들면, 서소형 작가는 영상 작품 〈그들의 허밍〉에서 문화연구가 레비스트로스의 책 ‘슬픈 열대’에 나온 사라진 부족의 노랫소리에 대한 묘사를 읽고 소리를 상상했다.

중구청을 지나 토촌 카페까지 • 한국근대문학관 앞에서 토촌 카페 사이(제물량로 218번길과 자유공원 남로)는 약간 오르막 길이다. 자유롭게 걸으며 들리는 소리를 형용사 혹은 색에 대한 말로 표현해 보고 이를 각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음한다.

자유공원 광장 • 자유공원 광장에서는 멀리 인천항이 보인다. 인천항 주변에서는 지금 어떤 소리들이 들리고 있을까. 소리를 상상해 본다. 서소형 작가는 어느 항구에서 들었던 소리들에서 영감을 받아 영상 작품 〈포그혼〉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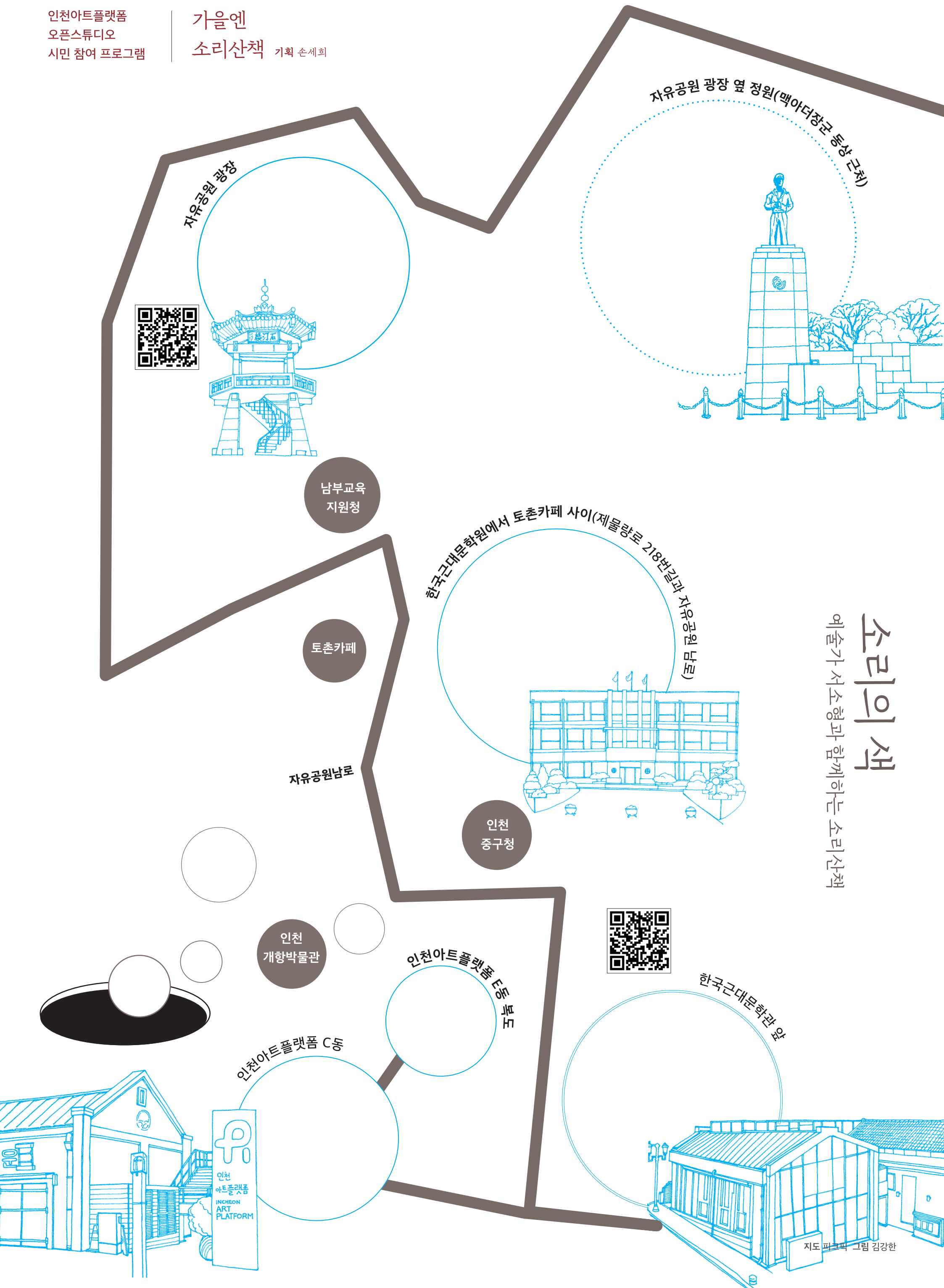
정원 • 바로 근처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는 정원에서는 벤치 등에 앉아서 눈을 감고 풀벌레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등 주변 환경소리에 더 집중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소리도 찾아본다.

10월 2일 오후 2시(소요시간: 70분 내외)

인천아트플랫폼 A동 1층 이음마당(만나는 장소)

— 한국근대문학관 — 제물량로 218번길

— 자유공원(끝나는 장소)



소리의 색
예술가 서소형과 함께하는 소리산책

해시海市, 바다 위에 지어진 도시

예술가 그룹 SEOM:(섬:)과 함께하는
소리산책

.....

가을엔 소리산책

〈가을엔 소리산책〉은 인천아트플랫폼 일대를 사운드 예술가들과 함께 걸으며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며 탐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리산책은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머레이 셰이퍼(R. Murray Schafer)가 특정 지역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생각해 낸 활동입니다.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는 ‘소리(Sound)와’ ‘풍경(Landscape)’의 합성어로 자연의 소리뿐 아니라, 기계 소리와 같은 인공적 소리, 사람의 목소리, 음악 등 다양한 소리를 포함하는 소리 환경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술가 그룹 SEOM:(섬:)이 계획한 지도를 길잡이 삼아 우리를 둘러싼 소리환경을 탐구하는 시간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 손세희

해시는 바다 위에 지어진 도시를 뜻하며 신기루 — 대기 중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실제로는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 라는 의미도 있다. SEOM:(섬:)은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인천아트플랫폼 주변의 소리를 네 가지 주제어 — 사라진 소리 소리, 존재하는 소리, 보이지 않는 소리, 이어지는 소리 — 를 중심으로 관찰한다.

먼저, ‘사라진 소리’에서는 바다의 소리를 들어본다. 소리산책의 첫번째 장소인 아트플랫폼 D동 시계탑에 서서 우리가 걷는 길이 예전에는 바닷물이 차 있던 곳이었음을 생각해 본다. 이곳은 개항 이후 필요에 따라 메워진 곳이다. ‘바다 위에 지어진 도시’, ‘신기루’라는 ‘해시’의 말 뜻 같은 풍경이 실현된 이곳에서 과거 이곳에 있었을 소리는 마치 신기루처럼 들린다.

포장된 도로의 화강암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존재하는 소리’이다. 퇴락하는 차이나타운을 다시 살리기 위해 2000년대 차이나타운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졌고 일본조계지 일대를 개발, 복원하며 화강암 포장도로가 만들어졌다.

‘보이지 않는 소리’는 이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로 장소를 새롭게 경험하게 한다. 이 길은 신포시장과 일본 조계지를 잇고 있지만, 관광지의 장식적 분위기가 제일 덜하다. 일본식 가옥이 서 있는 형태를 따라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좁은 이 길에 ‘없는’ 소리를 상상하며 걸어본다.

중화루부터 홍예문 중턱까지 걸으면서는 이 지역의 상징적 소리를 들어본다. 차이나타운이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차이나타운 어느 중식당 주방에서 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 소리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홍예문으로 올라가는 오르막부터 자유공원 입구 길목까지 주변 소리의 변화를 느끼며 걷는다. 자유공원 내 카페203 인근에서 참여자들은 오늘 기록하고 싶은 소리를 수집한다. 수집한 소리를 SEOM:(섬:)에게 메일로 전달하면 SEOM:이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들이 수집한 소리로 이 특정 시간, 장소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어 공유한다.

SEOM:(섬:) 이메일 • seomileeli@gmail.co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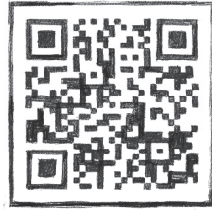
1차 · 9월 30일 오후 1시 30분
(소요시간: 60분 내외)

인천아트플랫폼 H동 1층 프로젝트룸(만나는 장소)
— D동 시계탑 — 제물량로 218번길(중구청 앞 도로)
— 중화루 — 홍예문
— 자유공원 내 카페 203(끝나는 장소)

2차 · 10월 1일 오후 2시
(소요시간: 60분 내외)

인천아트플랫폼 A동 1층 이음마당(만나는 장소)
— D동 시계탑 — 제물량로 218번길 — 중화루
— 홍예문 — 자유공원 내 카페 203(끝나는 장소)

해시海市,
바다 위에 지어진 도시
예술가 그룹 SEOM:(섬:)과 함께하는 소리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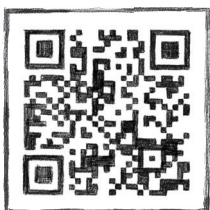


양재로

신포로 23번길



제물량로 218번길



인천아트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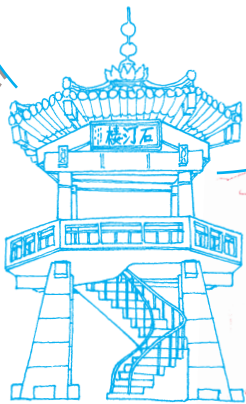
신포로 53번길

제물량로 218번길

인천아트플랫폼

일러스트 서하늬

자유공원 광장



송학로

자유공원 광장 옆 정원(맥아더장군 동상 근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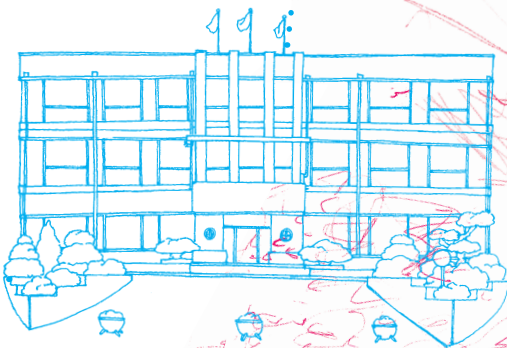
남부교육
지원청

한국근대문학관에서 토촌카페 사이(제물량로 218번길과 자유공원 도로)



토촌카페

인천
중구청



신포로 23번길



인천아트플랫폼 E동 복도

제물량로 218번길

한국근대문학관 앞



인천아트플랫폼 C동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아트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가을엔 소리산책
기획 순세희

